



불교총지중

총지중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신문

총기 52년
2023년 9월 1일
월간 발행

제보 news@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우인(최명현)

www.chongji.or.kr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67년 제 286 호

종조멸도절 종령법어

진실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라



종령 법공 대종사

바를 얻을 수 있으니, 사람의 지식을 구할 것이 아니라 법계의 진리가 비추는 바를 따르면 될 것이다.”는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원정 대성사님께서는 평소 교도들에게 “밀교를 수행하는 진언행자는 대일여래의 삼밀과 행자의 삼밀관행이 상응할 때 법계에 평등함을 실제로 얻고 깨달아 스스로 불도를 성취할 수 있다”고 불공 잘할 것을 강조하시며, 깨달음과 수행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불공하며 현실과 생활 속에서 진실하게 생각하고, 진실된 말을 하고, 진실한 행을 하여 삼밀을 이루면 법계와 행자가 평등한 현실을 깨닫게 되고 법신여래의 삼밀이 행자의 삼밀과도 같아져 결국 즉신성불을 이루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정통밀교의 대광명을 이 땅에 드리우고 즉신성불과 불국정토의 대원을 이루고자 총지종을 창종하신 종조 원정 대성사님께서 열반에 드신지 43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원정 대성사님께서는 병고의 고통 없이 시절 인연이 다했음을 알고 국기를 물려 세간 인연을 정리하시며 “이 육신으로 세상이 이런저런 일들을 했으나, 이젠 이렇게 제 몸 하나 가누지 못할 때가 왔구나. 마음은 그대로이나 몸은 새털처럼 가볍게 됐다.”고 하시며 마지막으로 “불공 잘해라”는 법문을 남기셨습니다.

원정 대성사님께서는 교도들이 마음에 다했던 혼란과 생활 속에서 벌어진 삶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으면 한결같이 “무엇이든 간절히 법계에 물어보면, 감응이 있다. 밀교행자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심지를 지켜 법계의 응답대로 행해야 한다. 불공을 잘 드리면 마장은 견고하고 원하는

한 종단의 흥망성쇠는 불공잘하는 데 달려있습니다. 우리 총지종의 모든 교도들은 종조님께서 열어 놓으신 훌륭한 법문과 수승한 밀법의 진리에 의지하여 변함없는 신심으로 조국평화통일과 밀엄국토의 대원을 이룩하고 나아가 전 인류가 진언밀법으로 하나되어 온 인류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정진해 나아갑시다.

오늘 43주기 종조멸도절을 맞이하여 온 종도가 비로자나부처님의 가지가 함께하시어 무한한 복덕이 이루어지기를 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총기 52년 9월 8일
불교총지중 종령 법공 합장

불교 대표 종단 ‘대학생 교화’ 함께 나서다

8월 28일, 통리원장 우인 정사 등 지도자 간담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대표 종단들이 한국불교 미래를 위해 ‘대학생 교화’에 함께 나설 것을 결의했다. 8월28일 동국대에서 개최된 ‘대학생 전법을 위한 불교계 지도자 초청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한국불교 중흥의 시대적 소명인 대학생 청년불자 양성은 불교계 전체가 함께 살피고 돌봐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대학생전법위 워크숍, 기금 모연 등에 함께 동참기로 결의했다. 이 자리에는 통리원장 우인 정사를 비롯해 상월결사 이사장 자승 스님,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 관음종 총정지자 동국장학회 이사장 흥파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범명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대각종 총무원장 만창 스님 등이 참석했다.

상지화 지수, ‘빛으로 돌아오소서’

8월 6일, 49재 천도불공법회 봉행



상지화 지수 49재 천도불공법회가 지난 8월 6일 본산 총지사(주교: 목경 정사)에서 스승과 유가족, 교도 4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다.

월초불공으로 인해 지난 7월 21일 5·7재로 200여 명의 사부대중과 함께 진행됐던 상지화 지수의 천도불공법회는 이날 월초 불공을 마친 후 봉행된 49재를 끝으로 영식의 극락왕생을 서원하며 원만 회향됐다. 서울경인교구 마니합창단은 ‘소원’, ‘빛으로 돌아오소서’, ‘어머니 마음’을 음성공양으로 울리며, 추선의 마음을 더했다.

상지화 지수는 1976년 승지에 오른 후 자비와 선행에 모범을 보였으며 1994년 기로진원에 든 후, 지난 6월 17일 세수 98세 법남 47세로 입적했다.

종/조/법/어

우주법계의 일체 형색은 법계법신의 신밀이요, 우주법계의 모든 음성은 법신구밀의 설법이며, 그 모두가 법신여래의 의밀이다.

지 면 안내

- 2면 종조멸도절 특집/ 원정 대성사의 큰 가르침
- 5면 왕생법문/ 괴로움을 해탈하는 방법
- 8면 밀교법장/ 밀교의 의례와 선의 길
- 10면 불교로 여는 삶/인과의 윤회 그리고 해탈의 지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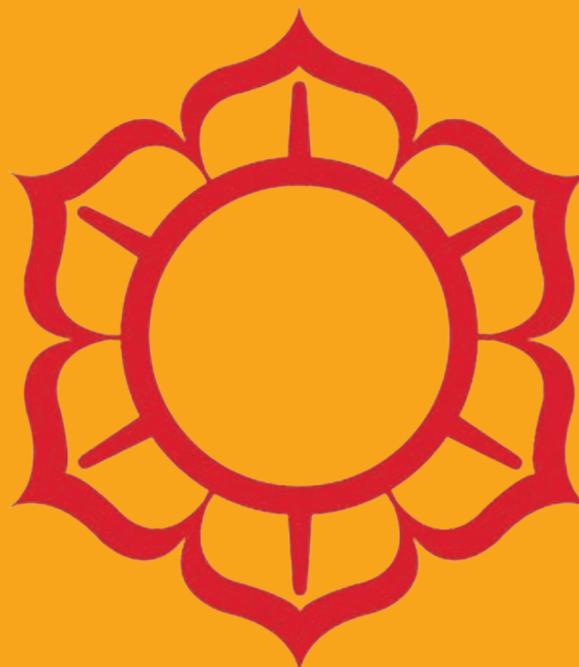
제43주기 종조멸도절 추선불사

이 땅에 밀교를 꽃 피우신 종조 원정 대성사님의 가르침을 이어 받아 종단 중흥을 위한 역사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며 추선불사를 봉행합니다.

날짜 총기 52년 9월 8일 (금) 오후 2시

장소 역삼동 원정 기념관 / 전국 각 사원 서원당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원정 대성사의 큰 가르침 가슴에 새겨보는 말씀 12選

종조님께서 입적하신 멸도절은 종조님의 육신이 멸한 날이기도 하지만, 법통이 계승된 날이기도 하다. 종조님의 정신과 가르침, 법이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43주기 종조멸도절을 맞아 다시 한 번 옷깃 여미는 마음으로 종조님의 큰 뜻과, 유훈을 받들어 보고자 '원정 대성사의 큰 가르침, 가슴에 새겨보는 말씀 12選'을 기획했다. 편집자 주



종조 원정 대성사 진영

- 인생은 무상하나 법은 멀하지 아니하고, 현실은 전변하나 진실은 영원하다. 『종조법설집』 스승의 사명 P5
- 은혜를 고맙게 여기면 은혜가 장원하고, 만사에 족함을 안즉 불만이 스스로 해소되느니라. 『종조법설집』 제3장 잠언편 p199
- 당상즉도 즉사이진(當相即道 即事而眞), 진리는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며, 바로 우리의 삶 한가운데 있다. 『종조법설집』 제1장 교상과 사상편 p11
- 생활하며 불법피고 불법피며 생활하자, 생활이 곧 불법이요 불법이 곧 생활이다. 『종조법설집』 제3장 잠언편 p200
- 해탈은 자율적이고 자주적인 인격완성을 의미한다. 『종조법설집』 제1장 교상과 사상편 p96
- 사람은 고난하여 성공하나니 고난이 없이 즐거움이 있을 수 없다. 『종조법설집』 제3장 잠언편 p216
- 불에 공양하는 자는 큰 복덕을 얻게 되고, 법에 공양하는 자는 모든 지혜 증장한다. 『종조법설집』 제2장 수행편 p111
- 어느 것 불상 아닌 것이 없으며, 어느 것 불공 아님이 없고, 어느 것 설법 아님이 없느니라. 『종조법설집』 제3장 잠언편 p226
- 몸과 입과 뜻으로서 상속하여 지음이라, 일체 모두 내가 이제 지심참회 하나이다. 『종조법설집』 제2장 수행편 p150
- 믿음이 높으면 진리는 깊어지나니 믿음은 공덕을 생기게 하고, 공덕은 믿음을 더욱 깊게 하느니라. 『종조법설집』 제3장 잠언편 p228
- 무상 속에서 진리를 찾고 고통 속에서 안락을 찾는 것, 이것이 불교의 수행이다. 『종조법설집』 제3장 잠언편 p183
- 우리는 크게 살자, 사람은 목표에 따라 행동이 다르다. 『종조법설집』 제3장 잠언편 p235

특경 정사의 총지 돋보기 (6)

원정 대성사님의 탄생과 행장

제43주기 종조 멸도절을 맞이하여, 종조 원정 대성사님의 탄생과 행장을 소개합니다. 지난 『불교총전』 편은 다음호에 이어가겠습니다.

이 땅에 정통밀교(正法密敎)를 다시 꽃피우게 하신, 총지종의 종조(宗祖) 원정 대성사(苑淨大聖師)께서는 1907년 1월 29일 경남 밀양군 산외면 다죽리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본관은 일직(一直) 손(孫)씨, 속명은 대련(大鍊)이셨고, 총지종의 창종과 함께 속명을 정우(禎佑)로 개명하셨습니다. 법명은 원정(苑淨)이십니다.

유서 깊은 고장 경상남도 밀양에서 부친 손기현(孫基賢) 님과 모친 이근호(李根浩)

여사의 2남 2녀 중 차남으로 탄생하신 원정 대성사께서는 타고난 성품이 영특, 민첩하고 불요불굴의 의지와 정의감, 뛰어난 기지와 고매한 인격을 소유한 큰 그릇으로 일컬어졌습니다. 어려서부터 비범하여 한 번 보고 들은 것은 잊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유년 시절에 이미 사서삼경(四書三經)을 통달하셨습니다. 전통적인 한학(漢學) 뿐만 아니라 일찍부터 서양문물에 대해서도 관대하셨습니다. 동양의 정신을 체(體)로 하고 서양의 과학기술을 용(用)으로 하여 급변하는 시대에 부응한 사회개혁의 웅대한 꿈을 품으신 원정 대성사께서는 이후 불교에 귀의하여 낙후된 종정을 개혁하시고 종단의 재단법인

화와 편의보발에 의한 도심포교라는 선구적인 발상을 하셨던 바, 이러한 것은 동서양을 아우르는 성사(聖師)의 유연하고 폭넓은 사고에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밀교의 중흥을 위하여 이 땅에 혜성처럼 나타나신 분이 바로 정통밀교 총지종을 창종하신 원정 대성사이십니다. 해방과 6.25전쟁이후 정신적 공황과 민생고(民生苦)에 허덕이는 이 땅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정법(正法)으로서 밀교의 가르침을 펼치신 것입니다.

원정 대성사의 해박한 세출세간(世出世間)의 폭넓은 학식(學識)과 뛰어난 밀교수법(密敎修法)의 수행력과 가르침은 총지종

을 더불어 한국밀교의 새로운 태동과 밀교 중흥의 굳건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한국밀교 중흥의 결심을 굳히신 성사께서 1972년 12월 24일 드디어 불교총지종의 창종을 만천하에 선포하셨습니다.

이후 교세는 불꽃처럼 일어 창종 7년만에 30여개 사원을 개설하기에 이릅니다. 교리를 새롭게 정비하고 행정기관인 통리원과 함께 교리적인 면을 뒷받침할 연구기관으로서 법장원을 신설하고 교도들의 참여와 신행활동을 돕기 위하여 신정화라는 모임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처처불공, 시시불공(處處佛供, 時時佛供)'을 내세워 언제 어디서나 쉽게 불공을 올릴 수 있도록 모든 불사와 식순을 간소화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생활의 불교화, 불교의 생활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어려운 밀교수법의 대중화에 진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1980년 9월 8일 밀법 홍포의 대

원(大願)을 제자들에게 부촉(咐囑)하며 원정 대성사는 74세를 일기로 이 세상의 인연을 다하고 입적하였으니, 실로 한국현대밀교의 중흥을 위하여 참모로 애석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원정 대성사의 밀엄국토건설과 정통밀교의 수립에 대한 대원은 총지종이 한국최초로 양부만다라를 완성하여 봉안한 것에서도 나타났듯이 끊임없이 계승, 발전되고 있습니다.

원정 대성사의 입적과 원로 스승들의 잇따른 유교로 요원의 불꽃처럼 일어나던 교세가 잠시 주춤한 적도 있었으나 이제 총지종은 새로운 도약의 자세로 꾸준히 교세확장에 모두 정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처음으로 현대밀교의 물꼬를 열고 대승불교의 신천지를 개척한 동방의 빛 원정 대성사(苑淨大聖師)의 가지신력(加持神力)이 온 누리에 호국불교의 대비원(大悲願)으로 번져나가기를 서원합니다.

불교총지종 불교용품

본존다라니(금색) 13.5x17x3cm	본존다라니(은색) 13.5x17x3cm	본존다라니(액자) 14x19x1.5cm	가정본존다라니(대형) 46x27x2.5cm	호신다라니(지갑형) 4.2x5.8cm	보리수 108염주	편백염주 108염주	편보리수 108염주
₩ 50,000	₩ 40,000	₩ 10,000	₩ 29,000	₩ 3,000	₩ 40,000	₩ 15,000	₩ 40,000

하반기 진호국가 불공, 인간방생으로 회향

서울경인교구·부산경남지회·자비회, 수재민 돕기에 쾌척



류길자 지회장이 부산경남지회를 대표해 부산사랑의열매에 수재민 돕기 성금을 전달했다.

서울경인교구(교구장: 록경 정사)와 부산경남지회(지회장: 류길자) 그리고 부산 정각사 자비회(회장: 백일숙)가 하반기 49일 불공 회향 후 인간방생비로 모인 성금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앞다투어 회사했다.

서울경인교구는 호국안민기원대법회를 다녀 온 후 모연된 회사금 일부를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우인 정사)에 기

탁하고, 목적에 맞는 활동에 자비나눔을 당부했다. 교구장 록경 정사는 “태풍에도 불구하고 부처님 가피와 교구 사부대중의 원력으로 여법하게 대법회를 봉행할 수 있었다.”며 “부처님의 동체대비와 방생의 가르침에 따라 교구차원에서 우리 재단인 사회복지재단에 보시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부산경남지회는 최근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수재민을 돕기 위해 자비의 손길을 펼쳤다. 류길자 지회장은 지회를 대표해 지난 8월 17일 부산 사랑의 열매 사무국을 방문하여 부산경남지회 각 사원에서 인간방생비로 모인 성금 500만원을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전달식 자리에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의미 있게 사용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자비회는 회원들이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같은 자리에서 150만원을 기탁하고, 수재민들의 수해복구 지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사랑의 열매 박선옥 사무처장은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주신 불교총지종 부산경남지회와 자비회 교도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집중 호우 피해 지역의 시설 복구와 이재민 생계비 및 구호물품 지원 등에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종단은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진우 스님) 30개 회원종단과 함께 5천만 원 성금 모금에 동참하고, 8월 10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김상미 기자

삼세십계(三世十界)

지혜의눈

진화는 상호작용으로 자연과 함께 변화하는 것 불교의 시·공간관은 현대 과학의 설명과 유사

역사는 인간의 삶을 다루는 대표적인 학문분야입니다.

근대 이전에는 역사가 남아있는 기록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면 근대 이후로 넘어오면서 기록이 없는, 즉 문자가 발명되기 이전인 선사(先史) 시대가 역사책에 담겨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대 이후에는 사회과학이 발전하면서 역사학에 영향을 끼쳤다면 20세기 후반에는 과학, 그 중에서도 특히 생물학과 천체물리학의 발달이 역사학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인간의 기원에 대한 탐구는 생명의 기원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우주의 기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빅 히스토리(Big History)라는 새로운 역사학의 분야가 등장한 것입니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는 이 분야의 대표적인 저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사피엔스> 보다 앞서서 역사학에 새로운 자극을 준 책으로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 균, 쇠>가 있습니다. <총, 균, 쇠>는 역사학자가 아닌 과학자가 쓴 대표적인 역사책이라고 합니다. 보통 <총, 균, 쇠>와 <사피엔스>를 함께 읽어보는 것이 많이 추천되고 있는데, 이는 과학이 역사와 같은 인문학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피엔스>는 현대 과학의 성취를 역사학이 받아들여서 구성한 책입니다. 어느 시대나 한 시대를 주도하고 지배하는 세계관이 있는데 21세기에는 과학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피엔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는 내용의 하나로 농업혁명을 역사상 최대의 사기라고 말하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수렵채집단계에서 농업으로의 이행이 발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면 수궁이가면서도 고개를 가우뚱거리게 만드는데 진화를 발전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비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생물학이 우리에게 끼친 영향으로 진화론을

꼽는데 이 진화론은 진화(進化)라는 말이 주는 느낌 때문에 발전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을 이러한 발전 개념으로 받아들여 인간사회에 적용한 것이 사회진화론인데 특히 자연도태와 적자생존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우생학과 연결되고 결국에는 인종정소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논리로 악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진화론은 결코 발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최적으로 적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진화(共進化, co-evolution)는 환경과 무관하게 어떤 생명이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쌍방이 나아가 자연 전체가 함께 변화하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화론에 의해 변화된 대표적인 것이 인종주의를 몰아낸 사실을 꼽습니다. 인종(人種, races)은 피부색을 기준으로 인간을 분류하는 방식인데, 아프리카에서 출발한 인류의 피부색이 오늘날과 같이 나뉘는 것은 이동하여 정착한 곳의 자연환경과 기후에 의해 적응하여 달라졌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변화는 겨우 몇 만 년 전에 일어난 사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종으로 구분하고 피부색으로 우열을 가리는 것은 잘못된 주장을 생물학이 밝혀냈습니다.

<사피엔스>는 이처럼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과학의 내용을 적극 수용하여 성립한 역사책입니다. 특히 불교가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과 비슷하게 인간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삼세십계(三世十界)의 준말로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과 전후좌우 동서남북 상하의 공간을 합친 말로 불교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너무나 거대하여 허황되게 느껴졌던 불교의 시간관과 공간관이 현대 과학이 설명하는 시공간과 유사하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칼럼리스트 김태원

종립 부산 동해중학교 송인근 교장 증임

종립 관음학사 부산 동해중학교 차기 교장에 현 송인근 교장이 증임됐다. 이사회는 이사장 우인 정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월 28일 제208회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송 교장은 2019년 9월 1일 제8대 교장에 임명되었으며, 임기 4년 만료일인 8월 31일을 앞두고 열린 이사회에서 증임됨에 따라 정년퇴임까지 2년 6개월 간 업무를 이어간다. 송 교장은 학습환경 개선 뿐만 아니라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스승의 날에는 교육발전 공로를 인정 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학교발전 앞장서고 있다.

BBS, 시청점유율 종교계 1위 방통위 8월 2일 발표, 불교채널로 처음

BBS 불교방송의 TV 시청점유율이 전체 종교계 채널 중 1위를 차지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8월 2일 301개 방송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에서 BBS 불교방송은 0.261%를 기록하며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채널을 포함한 전체 10개 종교채널에서 제일 높은 시청점유율을 보였다. 불교 채널이 방송채널 종교영역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청점유율은 전체 TV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 시간 중 특정 방송채널이 차지하는 비율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1년 단위로 조사해 결과를 발표한다. 통리원장 우인 정사는 “시청점유율 1위 차지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BBS불교방송 개국부터 함께 걸은 이사 종단으로서 더욱 지지하고 응원하며, 부처님 법음으로 불국토를 이루어 나가는 그 길에 늘 같이 하겠다.”고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인생의 가치를 자각하고 수행에 힘을 주는 불교총지종 「불교총전」

「불교총전」은 총지종 종조 원정대성사께서 현교(顯敎)와 밀교(密敎), 대승(大乘)과 소승(小乘)의 모든 경전 가운데서 그내용을 광범위하게 뽑아 불교전체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통불교적(通佛敎)인 입장에서 편찬하였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양하면서도 체계 있는 불교교과서이고, 불자들에게는 수행의 지표가 되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문의 불교총지종 통리원 및 전국 사원 | 전화문의 02)552-1080

윤금선 작가와 함께 읽는 『중조법실집』

불정존승다라니 염송의뢰의 오대서원 정진수행

제1장 교상(敎相)과 사상(事相) 편(篇)
제절 밀교(密敎)란 무엇인가

2. 정통밀교(正統密敎)는 조직(組織)과 체계(體系)를 갖춘다.

(앞 호에 이어) 밀교는 의궤(儀軌)를 준수(遵守)하고 염송을 즐기거나 진언을 남용(濫用)하지 말아야 한다. 인간의 존재는 여러 가지 가능성(可能性)을 내포(內包)하고 있다. 불이라든가 위급(危急)한 경우에 무의식한 가운데 무거운 가재도구(家財道具)를 혼자 들어내는 것을 보면 그 체력(體力)이 자기도 모를 정도로 잠재력(潛能力)을 갖추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운동선수는 훌륭한 코치와 엄격한 훈련에 의해서 잠재적인 체력을 개발(開發)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절대적조건(絶對的條件)이 바른 코치와 규율(規律)있는 훈련을 위반(違反)했을 때에는 소기(所期)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구(不具)가 되거나 생명을 잃기도 하는 것이다. 정신력(精神力)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학교교육도 직업교육도 잠재적인 개인의 능력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문자(文字)를 모르는 미개사회(未開社會)의 사람이 문자를 볼 때 이상하지만 알고 나면 당연한 것으로 아무 이상할 것이 없다. 평소 모르던 것도 시험공부를 할 때는 모두 기억해 버린다. 이것은 정신을 집중(集中)하여 두뇌(頭腦)를 유효하게 사용하는 까닭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평상시에도 이 방법을 쓰고 있으므로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고 하지만 누구든지 연습(練習)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체력개발(體力開發)에 그 방법이 잘못되면 불행을 초래하듯이 정신력의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한층 더 위험이 수반(隨伴)된다. (축지축지, 취물취물) 밀교의 근본성전(根本聖典)인 대비로자나성불신변가지경(大毘盧遮那成佛變加持經-대일경대일경) 밀인품(密印品)에서는 월삼매야(越三昧耶)가 엄중하게 금지되어있다. 삼매야(三昧耶)라함은 산스크리트어의 「사마야」의 음사(音寫)로서 이 원어(原語)는 정즉(定則), 약속(約束), 규정(規定), 규율(規律)이라는 뜻으로서 「어디서 만나자」는 약속도 국가의 법률도 모두 「사마야」지 마는 여기서는 불타(佛陀)의 서원(誓願)을 말한다. 밀교의 규정에 어긋나는 무자격자(無資格者)에(방불자謗佛者)비법(秘法)을 누설(漏泄)하면 「사마야」에 위배되어 월삼매야(越三昧耶)가 되는 것이다. 이는 법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열기(劣機)가 법을 듣고 감당하지 못하면 당자의 신체적 파멸(破滅)은 물론,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폐를 끼쳐서 법을 비방하기 때문이다.(방불수고謗佛受苦) 패퇴의 사기시(事記詩)의 일례를 들면 '마술(魔術) 쓰는 제자(弟子)' 라는 것이 있다. 어느 날 마술사가 집에 없는 사이에 제자(弟子)가 마술을 사용하여 빗자루에게 물을 길러오라고 명했다. 빗자루는 냇가에 물을 길러오기 시작하여 물이 통에 찾는데 그만 두라는 주문(呪文)을 몰라서 중지(中止)시키지 못하고 빗자루는 자꾸자꾸 물을 길러왔다. 제자는 다급하여 도끼로 빗자루를 두 토막을 내었으나 빗자루는 두 개가 되어 배로 길러오니 집은 홍수(洪水)가 졌다. 제자가 비명을 지를 쯤에 마법사가 돌아와서 정지시켰다. (주술呪術, 축지축지에 퇴신 못함과 같다.)

인간은 자연을 개발하고 원자력(原子力)을 개발하여 그 이용에 성공하였으나 그 결과는 많은 인간을 파멸에 빠뜨렸다. 정신력개발의 가능성은 무한하나 선량한 바탕위에서 개발이 되어야지 그렇지 못하면 자타가 모두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밀교는 항상 오대서원을 가지고 (불정존승다라니염송의뢰소제오대서원(佛頂尊勝陀羅尼念誦儀軌所載五大誓願)) 수행(修行)하게 된다.

밀교에서는 의궤를 중요하게 여긴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본래 부처님 법신임을 증명하는 방편이자 바로 지금 이 몸으로 보살의 삶을 구현해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신구의 삼밀의궤를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지켜 나갈 것을 강조한다.

그런데 밀교의식에 대한 설명에 앞서, 염송을 즐기거나 진언을 남용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길게 예를 들고 있어 조금 당황스러웠다. 누구에게나 잠재해있는 무한한 육체의 능력과 정신력에서부터 오남용되고 있는 아주 흔한 사례들이 자세히 설명되는 데다 심지어 괴테의 마술 이야기를 예로 들고 마침내 자연을 개발하고 원자력을 개발하였지만 그것이 인류를 파멸에 빠뜨리고 있다고 경고하는 데에서 당혹감은 커졌다. 원정 대성사께서는 도대체 왜 이렇게 구체적이고 자세하, 거듭 경계하는 것일까?

아직 충분히 알지 못하면서 불교의 가르침을 넘겨짚는 경우는 흔하다. 공의 가르침만 해도 그렇다. 듣는 순간 허무하다는 생각부터 들고, 세상만사 덧없고 의미 없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업이라는 가르침도 비슷하다. 업장 운운하며 내가 댄 상대가 댄 손쉽게 누군가를 탓하거나 지나온 과거 탓으로 치부해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절망에 빠지기 일쑤다. 업연히 이렇게 내가 존재하고 모두들 자기를 챙기며 사는데 무아라니, 알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싫다. 그러나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심지어 동체 대비라는 데에 어찌 공감할 수 있으랴. 다 하기 좋은 말이고 도덕 교과서 내지 종교에서나 하는 이상주의자의 말로 치부하게 된다. 이제 막 계단 입구에 서서 저 높이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어렵듯이 듣고 제 나름대로, 제멋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셈이다.

인도불교와 밀교의 전통을 원형 그대로 계승하고 구현해온 티베트 불교에서는 <입보리행론>, <보리도등론>, <보리도차레론> 등을 중요시 여기는데 여기서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단계적인 공부와 수행이다. 그곳의 승려교육은 최소 16년이고 박사 학위라 할 수 있는 계좌까지는 20년 이상 소요된다고 한다. 궁극의 도인 탄트라를 증득하기까지 경전공부는 물론 통찰과 수행을 순서대로 체계를 밟아야 하는 것이다.

중국에 오시교판론이 있다면 티베트에서는 깨달음

으로 가는 길을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로 나눈다. 부처님의 법문을 근거와 상황에 맞는 대기설법이라 하고 수준과 단계에 따른 차제설법이라 하는 것도 같은 이야기이다. 가르침을 듣는 이가 누구이고 어떤 상황이며 어떻게 공부했고 무엇을 지향하는지에 따라 가르침은 달라진다.

불교의 교리와 사상도 이렇진대 보살의 몸을 갖추고 금강법신을 이루기 위해 닦는 수행의궤법은 더더욱 설명하기 어렵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으리라. 먹고 살기 바쁘고 눈앞의 일들로 허덕이는 이에게는 진리라든가 중생구제는 머나먼 남의 일일 수밖에 없다. 당장 고통 없이 잘 사는 방법이 궁급할 뿐이다. 이 생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속제법이 귀에 먼저 들어온다. 선행을 베풀라는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닦으려는 것만 해도 거칠고 욕심 사나운 이 세상에서 대단한 선근이다.

일시적이고 상대적일지라도 소박한 행복을 위해 절제하고 베풀며 살다보면 어느 날인가 문득 욕망과 분노와 번뇌의 마음을 다스리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진정한 행복은 가지려는 데서 찾아질 수 없음을 알게 된다. 스스로를 성찰하고 마음자리를 바꿔야 한다는 걸 깨닫는다. 진리에 귀 기울이게 되고 완전한 해탈을 꿈꿔보기도 한다. 나와 가족이라고 하는 작은 울타리에서 벗어나 시야가 확장되고 연민의 마음이 커져간다. 무아, 공성, 그리고 중생구제와 깨달음을 향한 보리심과 보살행원에도 마음이 가닿는다.

보살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이 몸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보살행과 원력행을 성취하기 위해 전혀 다른 의미로 몸을 소중히 여긴다. 그럴 때야 몸과 입과 마음의 삼밀이 하나 되는 수행의궤를 사심 없이, 오염 없이, 오차 없이 닦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원정 대성사께서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때가 무르익지 않았다면, 의궤수행으로 얻어지는 조금의 성과도 본인과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고 여러 사례를 들어 설명한 것이다. 그 불행과 폐해를 막기 위한 근간은 오대서원이다. 오대서원을 항상 간직하고 수행하라는 말씀을 잊지 말자.

BBS 「무명을 밝히고」 「거룩한 만남」 윤금선 구성작가



부산 정각사 추석 차례 불공 봉행

추석, 오곡백과 풍성한 한가위에 조상 은혜를 다하고자 부처님께 추선 불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하시어 복락 누리시기 바랍니다.

일시 _ 총기 52년 9월 29일(금) 13시

장소 _ 부산 정각사 2층 득락전

 불교총지종 정각사

부산시 동래구 시실로 19-9 | 051.552.7901 | 계좌번호: 094-000016-04-015(기업은행)



보시는 세상 따뜻하게 하고 괴로움 해탈하는 방법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욕심이고, 탐진치 삼독으로 끝없는 괴로움의 바다에 빠져 헤매고 있는 것이요, 괴로움을 해탈하는 방법은 보시뿐이다.

인색한 사람은 극락왕생 할 수 없다. 어리석은 사람은 베풀 줄 모른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베푸는 것을 좋아하니

그는 그 선행으로 인하여 보다 높은 세상에서 축복을 누리게 된다.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해 가는 방법은 다양해서 하나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지만 핵심적인 원리로는 인과(因果)의 법칙이 연기(緣起)와 만나 전개되는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원리는 세상을 좀 더 부드럽게 하고, 따스하게 하는 가르침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시입니다. 보시는 베풀을 근본으로 세상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가는 윤회유와도 같은 것입니다.

먼저 『초발심사경문』을 보면 “삼악도(三惡道)의 괴로움을 가져오는 데는 탐욕으로 지은 업이 첫째가 되고, 육바라밀 중에서는 보시가 으뜸이 되느니라. 간담은 능히 착한 길을 막고, 자비로 보시 하면 반드시 악한 길을 막느니라. 만일 가난한 사람이 와서 구걸하거든 넉넉지 못하더라도 아끼지 말라. 울 때도 한 물건 없이 왔고 갈 때도 또한 빈손으로 간다. 나의 재물에도 연연할 것 없거든 다른 이의 재물에 여찌 마음을 구하는가? 살아생전 아무리 많이 장만해도 죽은 다음 가져갈 것은 오직 지은 업뿐이다. 사를 닦는 마음은 천년의 보배가 되고 백년 탐물은 하루아침에 티끌이 되느니라. 노래하노라 어찌하여 괴로운 삼악도가 생겼는가? 다 생도록 탐하고 애착가진 때문일세, 부처님

의 사사 발우 이대로 살만한데 무엇하러 쌓고 모아 무명만 기르느뇨.”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욕심이고, 탐진치 삼독으로 끝없는 괴로움의 바다에 빠져 헤매고 있는 것이요, 괴로움을 해탈하는 방법은 보시뿐이다.

생각해보면 누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욕망을 통해 나의 괴로움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재산을 가졌어도 만족하면 행복이고, 만족하지 못하는 욕심은 고통을 낳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복의 기준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가치관을 통해 형성됨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布施)는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보(布)’는 나의 재물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뜻이고, ‘시(施)’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뜻으로, ‘산(散)’ 또는 ‘사(捨)’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보시에는 진리를 가르치는 법시(法施), 의복이나 음식, 재물 등의 물질을 베푸는 재시(財施), 공포를 제거하여 안심케 해주는 무외시(無畏施)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베푼다는 생각도 없이 베푸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보시요, 대승에서 강조하는 이타적 자비행의 근본인 것입니다.

첫째, 재시는 물질을 원인으로 타인의 고통을 제거해주는 수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삶이라는 자체가 물질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것인데 모두에게 물질이 평등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



진주 화엄사 관세음보살상

니다. 누구는 별 노력도 없어 보이는데 평생을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는데 주어진 물질적 환경은 궁핍합니다. 이런 경우 불교적 해석은 삼세인과로 설명되는데 과거 전생에 이미 이생을 살아갈 복력을 지어서 지금의 노력과 상관없이 복을 누리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현상은 그렇지만 문제는 지금부터 또 다시 맞이할 미래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 것을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남과 더불어 나눔의 아름다움을 실천할 때 따뜻하고 미래는 평화스러워짐이 제시됩니다.

둘째, 법시는 정신적으로 궁핍해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 좋은 말씀으로 그를 편안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물질을 보시하면 얼마간의 고뇌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베풀면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일체유심조’라는 말에 한 생각 돌이키면 일체가 내 것이라는 뜻을 유추할 수 있는데, 그 한 생각을 돌이키는 원천은 곧 진리를 만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잡아함경』에 “먹을 것을 베풀면 큰 힘을 얻고, 입을 것을 베풀면 잘생긴 얼굴을 얻으며, 탈 것을 베풀면 안락을 얻고, 등불을 베풀면 밝은 눈을 얻으리라. 손님을 반갑게 맞이하면 모두를 주는 것이고, 법으로 중

생을 가르치면 감로를 베푸는 것이니라. 감로는 세상에 비교 할 수 없는 즐거움을 주는 것이지요.”라고 설하였습니다.

셋째, 무외시는 다른 생명의 공포심을 제거해 주는 행동입니다. 즉 상대를 편안하게 해 주는 나의 자애로움이라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세수하면서 코만지는 것보다 쉽고, 어렵게 말하면 세상에 이보다 힘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즉 다른 이에게 따뜻함과 편안함,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이 무외시입니다.

『업도속업경』을 보면 부처님은 재산을 활용하는데 따라 부자를 세 부류로 나누었다고 하십니다. 재물을 굶어모으면서도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자를 ‘하재(下財)’라 합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입지도 먹지도 않으며, 부모에게 공양하지 않고 바른 삶을 지도하는 성자나 수행자에게 공양도 하지 않습니다. 이와는 달리 지성으로 부모와 처자를 봉양하고 손님과 권속을 정으로 돌보는 자를 ‘중재(中財)’라고 합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죽으면 무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여 선을 행하고 은혜를 베풀면서 뒷날의 복을 바라지는 않으나, 성자나 수행자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부모에게 효순하고 규범을 잘 지키며, 가난한 자와 못난이를 돌보아 주고, 성자나 수행자를 공경하면서 재산을 베푸는 사람들을 ‘상재(上財)’라고 하며 이들은 세상에서 더 견줄 데가 없는 대장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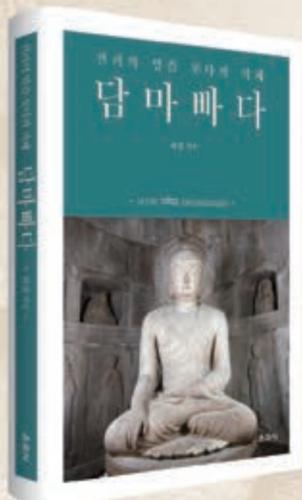
물질을 모으는 것도 따지고 보면 보시기 위한 것일 때 아름다움이 존재합니다. 재산을 모으기만 하고 쓸 줄을 모르는 것은 어찌면 어리석음입니다.

『법구경』을 보면 “인색한 사람은 극락왕생 할 수 없다. 어리석은 사람은 베풀 줄 모른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베푸는 것을 좋아 하니 그는 그 선행으로 인하여 보다 높은 세상에서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총기 32년 3월 <이달의 설법문안>

시대를 초월하고 종교를 뛰어넘어 전 인류에게 사랑 받는 ‘진리의 말씀’!

부처님의 가르침이 원음에 가깝게, 가장 순수한 형태로 남아 있는 경전!



진리의 말씀 붓다의 지혜

담마빠다 法句經

가장 오래된 경전의 하나인 『법구경』의 팔리어 원본을 화령 정사가 쉽고도 간결한 현대어로 번역하였다. 출가 수행자는 물론 모든 불자와 일반인에게도 귀감이 되는 주옥같은 붓다의 말씀이 매 구절마다 심금을 울린다.

고해를 건너는 소중한 뗏목이며 사바세계를 비추는 등대와 같은 『담마빠다』! 이천만 불자들의 필독서!

화령 역주/국판/양장/192쪽/값 14,000원

법보시 문의: 화령 정사 010-9999-0407

밀교에 명운을 걸고 스승의 길로 들어서다



종조 원정 대성사 일대기

<23화>

1907.01.29 경남 밀양 출생
1972.12.24 불교총지종 창종
종령 및 서울선교부 주교 재임
1980.09.08 입적(세순 74세)

밀양 심인당에 출석하면서 대성사는 자신이 본 바와 생각한 바를 세세히 적어 회당 대종사와 깊이 논의하기 시작했다. 난리통이지만 교세가 급격히 팽창하던 때라 스승을 세우는 일과 수행의 교범을 만드는 일이 중요했다. 남녀 스승을 '정사(正師)'와 '전수(傳授)'로 부르는 용어도 당시에 이르러 정해졌다. 교범의 체계 하나하나가 대성사와 회당 대종사의 고민 끝에 정립되기 시작했다. 밀교의 교리 또한 새로운 시선과 해석으로 제자리를 잡아갔다. 대성사의 어깨가 점점 무거워지던 시기였다.

1953년, 전쟁은 거의 끝을 앞두고 있었다. 밀양과 부산 등지에는 흉년 철수 때 피난 온 이들이 많았는데, 그들도 빠른 시일 내에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리라는 것을 아는 듯 피난지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전쟁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현실의 불안정함과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종교적 고민을 하는 이들이 늘어났다. 절과 교회를 찾는 이들이 줄을 이었고 새로운 종교적 움직임도 생겼다. 생존의 문제만큼 불합리한 현실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이들도 늘어난 것이다.

그해 4월 대성사는 경상남도 밀양읍의 지방주사로 승진했다. 전쟁 초기에 밀양공립농림중학교는 6년제에서 3년제 고등학교로 바뀌었고 대성사는 고등학교 교육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였다. 그 와중에도 밀양 심인당에 나가며 수행을 계속하였다. 전쟁 중에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는 모습을 보면서 대



1953년 심인불교진각종보살회헌법제정기념(대성사 맨뒷 줄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성사도 유한한 삶과 생명에 대한 생각이 깊어졌다.

“우리는 두 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즉 육체적인 생명과 정신적인 생명이다. 육체의 생명은 생로병사를 받아야 하는 무상한 생명이고 정신적인 생명은 상락아정의 열반체인 영원한 생명이다. 세상은 이 정신적인 생명체를 모르고 육체적인 생명만 소중하게 생각하고 죄업을 지어간다. 그러나 우리는 정신적인 생명을 소중히 가꾸어야 할 것이다. 무엇인가를 믿는다는 것, 진리를 향해 나간다는 것,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곧 정신적인 생명이며, 정신과 육체 또한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정신이 건전해야만 육체도 건전한 것이다.”

삶과 죽음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고민의 결과는 결국 믿음을 가지고 건전한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한다. 특히 종교의 비밀한 면을 이렇게 강조했다.

“어느 종교에도 비밀스러운 부분이 있다. 수행의 깊이에 따라 그 비밀을 닦아 익히거나 자신의 것으로 깨달아 얻게 하는 것이 근본이다. 다른 종교보다 불교에 그 비밀스러

운 법이 많고 그 대표적인 것이 밀교이다.” 이것은 불교 경전을 살피고 수행한 끝에 대성사가 얻은 지견이다. 이 때문에 불교의 어떤 가르침보다 밀교의 내용이 시대와 맞다고 여겼다.

밀양 심인당에서 대성사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커졌다. 대성사에게 종교적 질문뿐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를 묻는 이들이 늘어났다. 그들을 대하며 수행을 통해 마음과 육체가 변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새로운 인연의 시간이 다했다는 것을 실감했다.

1953년 8월 24일, 심인불교건국참회원(心印佛敎建國懺悔園)은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종단 체계를 완성하기 위해 제헌 총회를 열었다. 대구 남산동 심인당에서 열린 이 회의에 대성사는 교도 대표로 참석하게 된다. 전국의 스승을 대표해서 정사와 전수 23명, 그리고 교도 대표 50명이 모여 종단의 미래를 도모한 회의였다.

회의를 통해 심인불교건국참회원이란 기관은 '대한불교진각종 심인불교 보살회(大韓佛敎眞覺宗 心印佛敎 菩薩會)'로 바뀐다. 종단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인회(印會)가 구성되고 회당 대종사가 회장으로 추대됐다.

종단의 체계를 세워야 한다는 대성사의 조언과 함께 중지를 모아 계율에 해당하는 인법(印法)이 제정되고 새로운 출발을 기약하게 된다.

심인불교(心印佛敎)의 심인이란 불심인(佛心印)을 말하며, 마음속의 부처이다. 진리는 불심인의 진리를 뜻한다고 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심인이야말로 본심(本心)이며 마음 가운데 있는 부처님이니 일체 인과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 심인불교의 종지이다. 종회와 종법과 수행체계가 갖춰지면서 진각종은 큰 도약을 도모하고 있었다.

그러나 순풍이 불면 역풍도 함께 찾아오는 것이 피할 길 없는 세상 이치이다. 순조로운 것 같던 출발은 인간적인 반발과 저항도 겪었다. 참회원을 고수하는 이들도 있었고, 인법을 내세워 사람을 재판하는 감정적인 반발도 일어났다. 결국 세상의 이목을 끈 사건이 터졌다. 원망과 대립은 법적인 문제로 비화돼 소위 '심인불교 사건'이 벌어졌다. 회당 대종사의 구속까지 이어진 사건은 결국 창종 과정에서 빚어진 인간적인 대립과 금전 문제가 화근이 된 것이다.

결국 이듬해인 1954년 포항과 울산 등지

의 참회원과 교도 일부가 떨어져 나가 '대한불교진언종참회당교도회 유지재단법인(大韓佛敎眞言宗懺悔堂敎徒會 維持財團法人)'을 결성한다. 또 하나의 밀교종단인 진언종(眞言宗)이 가지를 쳐 나갔다. 한국 밀교의 새로운 장이 열리자 대성사는 오래도록 몸담았던 천직에서 물러났다. 1953년 9월 30일 사직원을 내고 교직과 공직 생활을 접은 것이다. 개인적인 아쉬움과 안정적인 길을 떨치고 시대가 요구하는 미지의 길로 발걸음을 옮겨야 했다. 그리고 그해 11월 2일 정사 후보로 임명되어 막 문을 연 서울심인당에서 교화에 나선다. 서울심인당은 지방의 터전을 서울로 옮기기 위해 종단의 명운을 걸고 있던 곳이라 그 중요성이 높은 곳이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대성사는 스승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스승이란 말로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다. 시취(試取) 스승, 정사보(正師補)를 거쳐서 대성사는 1955년 4월 13일 정사로 승진하였다. 당시 대성사의 법호는 시당(施堂)으로 시당 정사라 불리었다. 갓 출범한 신생 종단이 분류에 휩싸이고 법정 다툼이 벌어지면서 세상의 의혹이 모였을 때다. 누구라도 이 불편한 현실에서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것을 대성사는 마음 깊이 깨닫고 있었다.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구하기보다 새 종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대승보살은 결코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생생하게 인생의 고락을 겪으면서 고난을 통해 마땅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만이 걸을 수 있는 길이다. 오상성신(五相成身), 즉 보리심을 통달하고 보리심을 지키며 금강심을 이루고 그 금강심을 키워 불신원만의 단계를 모두 수행하여 온전히 부처가 되리라는 물러서지 않는 각오로 정진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스승의 길을 걷는 대성사의 각오였다. 사람과 재산에 얽힌 종단의 분란을 지켜보며 스승과 교인과의 관계와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느낀 바가 있었다.

불교총지종 가정희사고



사이즈 가로 25cm
세로 15cm
높이 15cm
정가 60,000원
문의 02)552-1080
불교총지종 통리원

가정희사고가 제작되어 보급 중입니다.
희사공덕으로 서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법신불에 공(供) 할 것은 아무데나 못 쓸지라 정성으로 정시(定施)하고, 때로 차시(差施) 모은 것은 한 분 밖에 다시없는 법신불에 희사한다.<종략>

정시(定施)는 제독(除毒)이며 또 곡식을 심는데 밀거름과 같으며 차시(差施)는 웃거름과 같이 그 때마다 속히 그 서원을 성취하고 절량(絶糧)은 생미(生米)로써 때때로 불공함이니 각자가 이것을 실천하여 법신부처님께 공양을 올려보면 다 진실로 자기에게 곧 실지 묘과(妙果)가 있는 것을 알지니라.

<종조법설집 보시와 법시 편 중>

교육과 장학제도 운영으로 연구와 인재 양성에 주력

총지종의 역사

제2부 밀법 흥포의 대원을 계승·발전(1980년~1994년)
01. 흔들림 없는 종단 운영 : 새롭게 단장한 조직과 제도②

기로운법 제정

1982년 10월 19일 원의회에서는 사감원 법과 함께 기로운법을 제정했다. 스승의 복리후생을 위해 창종 초기부터 운영을 시작한 심우회(법륜회로 개칭)의 정신을 기로스승의 노후복지제도로 구체화했다. 기로운은 교화와 종단 발전을 위해 헌신한 승직자에게 노후 및 퇴직 후의 삶을 보장하고 여러 공적에 대하여 예우하며 종단 구성원 모두가 합심하여 스승을 마지막까지 봉양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탄탄한 노후복지제도를 통해 전 승직자가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 없이 오직 총지종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실천하고 교화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기로운으로 진원하는 기준은 15년 이상 종단에 소속되어 수행과 교화에 매진한 65세 이상의 스승, 정년퇴직한 스승, 승속 15년 미만이라도 노약자이거나 무의탁 스승으로 하고 이공, 거처, 봉양 등 예우의 원칙과 지원 방안을 세부적으로 정했다. 자격기준을 갖춘 승직자에 대하여 기로운으로 발령하고 근무 기간에 따른 이공과 주부식비, 제 수당, 치료비 등을 지급했다.

불교종단이 대부분 2000년대 들어서도 승려 노후복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현실에 비춰보면 이미 1980년대에 원로 스승의 노후복지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종단의 앞선 정책을 유감없이 보여 주는 사례이다.

조계종은 사찰 수가 3,000여 개에 이르지만 1,062명의 노스님 중 일부 스님들은 거처가 마땅치 않은 것은 물론 의료혜택도 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중략) 태고종, 천태종 등 주요 종단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연금제도, 실버타운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지

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반면 진각종과 총지종은 교화일선에서 퇴직한 원로 스승들을 위한 기로운(耆老院)을 각각 설립하고 원로스승들의 원만한 수행, 봉양(연금지급), 간병, 입적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스승노후복지정책을 제도화하고 있다. - 현대불교신문, 2001년 7월 11일, '스님 노후복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중

1986년 12월 23일 통리원 인근에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여 임직원의 요사를 겸해 기로운에 대한 숙식 지원을 시작했다. 이후 1991년 4월 중정자문위원회에서 평생을 중생교화에 바치고 종단 발전에 헌신한 기로스승에게 노후생활의 편의와 안식을 제공하기 위해 법천사의 공지를 기로운 건축부지로 확정했다. 1992년 10월 지하 1층 지상 3층 총 4,428㎡ 규모의 기로운을 건립하여 기로스승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노후를 보내고 수행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기로운에게는 종단에 설치된 기로운이나 개인이 원하는 곳에서 생활할 선택권을 부여하여 원하는 장소에서 최적의 수행과 회향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기로운에 대해서는 종단 차원에서 기로운스승 진원식을 거행하여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기로 가사와 공로패 등을 전달했다. 기로운스승은 지속적으로 사원 교화와 종단 운영에 자문과 협조를 제공하고 수행과 교화에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정신적 지도자로서 스승과 교도들을 이끌고 있다.

밀교연구소 개소

1985년 2월 22일 총지종의 사상과 교의를 보다 깊이 있게 연구하기 위해 법장원 내에 밀교연구소를 개설했다. 환당 정사를 수석연구위원으로, 효강 정사, 청담 정사를 상



임연구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미 1981년 총지종의 핵심 사상과 교의 체계를 정리한 홍보 책자 <정통밀교 불교총지종>, 1984년 기초교리책자 <정통밀교 문답집>을 펴낸 종단은 밀교연구소 개설을 계기로 대성사의 가르침과 총지종의 수행법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했다.

원정 대성사의 평소 법문과 발표되지 않은 유고 자료를 정리하여 1985년 4월 20일 <중조법설집>을 발간했다. 평소 스승과 교도들에게 강조했던 대성사의 가르침과 수많은 연구자료, 법문 기초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입교개종의 정신, 스승의 사명, 교상과 사상, 수행, 잡언, 밀교경전 초역의 내용으로 펴냈다. 불교사상과 밀교사상의 진수를 만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상 속 구체적인 수행 덕목과 간결하고 뛰어난 명구들을 통해 대성사의 원대한 이상과 세심한 가르침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1991년 8월 29일 총지종 범의의식을 총망라한 <불사범의집>을 발간하여 종단의 식에 참여하는 승직자와 교도들의 편리성과 통일성을 기했다. <불사범의집>은 누구

나 스스로 불공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고 이후 종단 수행법 연구의 기초자료가 되었다.

중앙교육원 신설

1986년 스승과 종무원 및 교도 교육을 전담할 중앙교육원을 설립했다. 초대 교육원장으로 효강 정사가 임명되어 종단 교육체제를 수립했다. 종단이 발전하고 승직자와 교도가 늘어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세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했다. 인재양성을 통한 종단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승직자 교육과 함께 계층별, 대상별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중앙교육원은 먼저 시무교육, 스승교육, 스승 보수교육, 강공회의 커리큘럼과 강사 등 승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관리에 집중했다. 밀교사상과 밀교관법을 중심으로 하되 보다 다양하고 심층적인 불교 사상과 리더십, 경영실무 등으로 교육내용을 넓혀 갔다.

1988년부터는 학생회 수련법회, 경로수련법회, 어린이 수련법회 등 교도를 대상으로 하는 수련프로그램을 실행했다. 수련프



1985년 2월 22일 총지종의 사상과 교의를 보다 깊이 있게 연구하기 위해 법장원 내에 밀교연구소를 개설했다.

로그램의 기획과 진행으로 종단의 교화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교육대상을 교도 뿐 아니라 일반인으로 확대하여 총지불교대학, 총지교양대학, 요가교실, 만다라 행복아카데미 등으로 확장했다.

한편, 창종 초기부터 사원 단시금의 5%를 도제양성비로 적립해온 종단은 스승은 물론이고 교부와 교도 가운데 종단에서 일하고자 서원을 세운 이들에게도 장학금을 지원했다. 유능한 인재를 발굴, 양성하고자 1987년부터 승직자 및 교도의 자녀 중 불교대학 진학 희망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신규스승의 자격으로 시교제도를 도입하여 시교수계식과 시교자 교육을 실시했다.

1988년 10월 25일 원의회에서 종비생 육성에 관한 세칙을 정해 인재 발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종단에서 일하고자 서원을 세운 교도에게 불교 관련 학과의 학사 및 석박사 과정의 학비를 일부 또는 전액 지원했으며 총지사의 임직원 요사를 종비생 기숙사로 제공하여 학업을 뒷받침했다. 제반 교육과 장학제도로 종단 발전에 근간이 되는 인재 양성을 위해 주력했다

관성사 교도 광고



훈치과의원

대표원장 김 훈

진료시간

평일	9시 30분 ~ 18시 30분
수요일	야간진료 20시 30분
토요일	9시 30분 ~ 14시
점심시간	13시 ~ 14시



버스 이용시 산곡동 천주교회에서 하차

인천 부평구 세월천로16, 청천푸르지오 아파트 2차상가 204호
Tel. 032-516-2275



밀교의 의례와 선의 길

불가사의 저술의 「공양차제법소」 구성은 서분에 해당하는 「진언행학처품」과 정종분에 해당하는 「증익수호정정행품」, 「공양의식품」, 「지송법칙품」, 그리고 유통분에 해당하는 「진언사업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진언행학처품」이 수행처를 다루는 것이라면 「증익수호정정행품」과 「공양의식품」은 각각 수행처의 정화와 공양을 실천한 것이고, 본수행은 「지송법칙품」에서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진언사업품」은 유통분에 해당한다. 그러나 도안의 경전 구성분류와 「공양차제법소」의 분류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불가사의가 아사리가 설한 대로 대의·유래·경명·문장해석이 「대일경」 제7권의 주석에 입각한 바른 입장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일경」의 출현 이후 진언문의 수행을 유가행의 입장에서 전개한 것은 「금강정경」이다. 「대일경」은 세간과 출세간의 문제를 고루 다루고 있기 때문에 행판뜨라로 분류하지만 「금강정경」은 출세간 중심의 유가행을 다룬다. 경전의 성립사로 볼 때 「금강정경」의 진언유가가 세밀한 출세간수행을 언급하지만 「대일경」은 세간실지와 출세간실지를 고루 중요시한다. 중생을 구호하는 세간의 진언사업과 출세간의 유가행을 고루 안배한다는 뜻이 된다. 불가사의가 「공양차제법소」에 대해 진언행이라 명명한 것도 이를 배려한 것이다.

불가사의는 「진언행학처품」에서, “자타의 이익을 성취하는 것은 위없는 지혜와 원(보리심)의 방편에 의한다.”라고 하였다. 진언행을 닦는 장소 가운데 공한처를 예시하고, 행주좌와와 의복, 음식의 위의를 설한 것은 「공양차제법소」 저술목적이 출세간의 수행에 있음을 예시하는 것이다. 이어지는 「증익수호정정행품」은 수행을 위

한 지계와 주처, 신체의 수호를 위한 것으로 차례방편으로부터 무감인대호까지 이르는 의식과 다음에 이어지는 「공양의식품」은 소작으로부터 무상유가에 이르는 진언문 전행의 전형적 모습이며 그 기조는 지금도 변함없이 계승되고 있다.

본 수행에 해당하는 「지송법칙품」에 대해 불가사의는 종취를 일컬어, “설하는 것에 차별이 없음을 바로 종으로 삼는다. 이익을 얻어 다른 이들에게 베푸는 것을 취로 삼는다.”라고 하였다. 문장의 해석은 모두 심문을 벌여 해석하고 있다. 심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자리의 수행과 이타행을 위한 밀교의 의식적 신변을 설하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특히 심문의 최후를 구성하는 대일삼밀속득문·석가진언성취문·비밀사업가해문은 대일여래의 실지를 성취하고, 석가모니불처럼 인간계에 출현해 중생을 구제하고, 구체적으로 세간실지를 통한 중생구호의 사업을 실현하는 것이다.

불가사의의 「공양차제법소」를 보면 아사리에게 선사의 품모가 다분히 보이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진언행학처품」의 대의에서 “참된 성품의 지극한 이치는 언어와 형상을 여의었음이라든 근기에 따라 시현하여 상으로써 나타내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한 것처럼 확실히 아사리는 언어도단의 경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밀교와 선의 목적은 모두 이상적 인간이 되는 것이다. 「대일경」의 태장계만다라는 7세기 초 인도 불교의 모든 이론과 실천체계를 만다라라는 공간에 입약해 탄생한 것이다. 대승교학과 보살의 원력, 수행지를 모두 거둔 것이다. 「공양차제법소」는 「대일경」 6권 전체를 요약해 수행의례로서 가장 간략한 진언행을 다룬 것이다. 역시 대일여래의 정각과 석존의 불사가 어우러져 있다.

불가사의는 선무외삼장(637-735)의 활동기에 활약했다. 백여 년 후 태어난 임제선사(?-867)가 있다. 「임제록」에서 임제선사는, “붉은 살덩어리 위에 하나의 무위진인(無位真人)이 있어 항상 모든 사람의 면문으로 출입한다. 아직 증험하지 못한 자는 살펴보고 살펴 보라.”라고 하였다. 이때 한 스님이 나와 “무엇이 무위진인(無位真人)입니까?”라고 묻자 임제선사가 선상에서 내려와 떡살을 붙들고, “말해라. 말해라.”라고 재촉했을 때 스님은 의논하고자 머뭇거렸다.

임제선사가 탁 밀치고는, “무위진인이 무슨 마른 똥대기인가?”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방장실로 돌아갔다.

「공양차제법소」는 철저하게 인도대승불교의 계승자이다. 석존으로부터 시작된 교단과 역사를 모두 헤아리고 있다. 선은 철저하게 실용적이다. 거추장스러운 언어, 문자를 거부한다. 적어도 선이 지나온 한 시절이 그랬다. 인간은 문자와 의식에 빠져 헤매기 쉽다. 임제선사와 거랑했던 선사의 머뭇거림에 임제선사는 분별을 부수지 않을 수 없다. 무위는 분별의 경계를 용납하지 않는다. 적어도 선의 기초는 그런 것이라 생각한다. 선의 소의경전인 「능가경」과 「금강경」은 반야와 보살의 원력으로 양 바퀴는 선과 밀교를 움직이며 항상 공존해왔다. 그것은 세간과 출세간실지이고, 무위의 경계이고 진인이기도 하다. 전통 승가의 전통을 지키는 것은 문자와 전승, 의례이다. 연기와 공사상과 관련해 인도불교는 논리의 끝을 보려하고 의식적으로 표현하였다. 선은 인간의 현실에서 언어도단 궁극의 현실을 보이려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전 동국대학교 티벳대장경역경원
정성준 연구원

남해 정사의



트라우마와 무상

트라우마는 재해를 당한 뒤에 생기는 비정상적인 심리적 반응으로 외상에 대한 지나친 걱정이나 보상을 받고자 하는 욕구 따위가 원인이 되어 외상과 관계없이 우울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심리적,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난다.

우리가 트라우마로 인해 충격을 받았을 때 마치 몸에 상처가 생겼듯 마음에도 상처가 생긴다. 그리고 그 상처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는 사람마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트라우마로 인한 마음과 몸의 변화나 고통은 나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를 목격한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사실이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우리들에게 트라우마로 인한 고통을 극복하고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려주셨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참으로 이제 그대들에게 당부하노니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방일하지 말고 해야 할 바를 모두 성취하라.”

부처님께서는 이세상의 모든 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으니 선법을 계발하는 것을 잊지 말고 부지런히 수행정진 노력하라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하셨다. 또한 “삶은 영원하지 않다. 지금 누리고 있는 복락이나 건강도 영원하지 않다.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을 때 되도록 많은 공덕을 쌓고, 지혜를 계발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언젠가 다가올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도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고 죽음을 당당하게 직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준비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사는데 달려 있다.”고 하셨다.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에게 무상의 진리에 대해 말씀하시고 부지런히 복을 짓고 수행정진할 것을 당부하셨다. 무상이란 일체의 만물은 끊임없이 생멸변화하며, 한

순간도 동일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생겨난 것은 소멸하며, 모인 것은 흩어진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태어난 것은 죽음을 맞이한다. 그리고 인(因)과 연(緣)이 서로 결합하여 생겨난 모든 현상은 이 무상의 이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사람들은 무상이라는 말을 허무하다는 말로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나이가 들고, 늙고, 병들고, 죽게 되고, 꽃이 지는 것을 허무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무상은 받아들이는 마음에 따라 아름답게 변하는 것이다. 우리는 매일 반복된 삶을 산다. 하지만 그 반복되는 삶이 매번 다르게 다가온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계속 변화해가기 때문이다. 젊을 때는 젊음의 아름다움이 있고, 젊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나이가 들면 성숙의 아름다움이 있고 그 나이에 해야 할 일들이 있다. 오늘이 지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부모님의 오늘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다. 내일이면 오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을지 모른다. 우리는 지금, 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 ‘무상’이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란 생각을 하게 된다.

11면 가로세로 총지문답 정답

경	로	법	회	산	이	뿐	이
복	구	무	해	무	득	탈	탈
궁	예	천	진				리
	지	생	미	스	코	리	아
	몽	당	연	필		펜	
서		분			하	회	탈
리		선		콜	라	겐	
태	풍	의	눈	로		추	석
		사	도	세	자		굴
가	을	바	람	움	현	무	암

총지사 교도 광고



양재동 꽃시장

태광식물원

WWW.YJFLOWER.CO.KR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2번지 (농수산물화훼유통공사 나동 97호)
 전화: 02-579-2249 휴대폰: 010-6350-5583 (백현일)

교도수행체험담 ⑦

총지종을 인생의 동반자로

벽룡사 전해선 보살

저는 총지종을 인생의 동반자로 삼고 마음이 풍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총지종에 처음 입교하게 된 계기는 사소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스물아홉인가, 간단한 수선이 필요해서 한복집을 찾았습니

다던 중이었습니다. 장사에 대한 의욕은 넘치지만 요령이 없어서인지 늘 피곤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점심 식사 때 손님 치르고 방에 앉아 염주를 돌리고 있노라면 그렇게 잠이 쏟아졌습니다. 식당 일에 집안 일까지 병행하느라 더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염주를 쥐고 앉으면 병든 닭처럼 졸면서도, 불공을 하는 게 좋고 또 든든했습니다.

‘은혜는 평생을 잊지 말고, 수원(愁怨)은 잠시라도 가지지 말라.’

이 글귀가 벽에 딱 붙어 있었습니다. 작은 종이에 크지 않은 글씨로 써진 문구였는데 어떻게 눈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읽는 순간, 화살에 쫓긴 것 마냥 구절이 마음에 꼭 박혔습니다. 그 아래에는 또 다른 구절이 있었습니다.

‘수원은 수원으로 풀리지 않고, 은혜를 생각할 때 풀리니라.’

이 구절 역시도 얼마나 좋던지 읽는 내내 가슴이 똥다똥다 뛰었습니다. 글이 너무 좋아서 정신이 번쩍 들고 두 손에서 땀이 날 정도였습니다. 당장에 저 글귀를 베껴 써서 저의 집 방마다 붙여놓고 싶었습니다.

“저 글이 그렇게 마음에 닿아?”
“네, 정말 귀중하고 좋은 글인 것 같아요.”

여전히 글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제게 언니는 언제 한번 시간을 내보는 게 어떨냐고 했습니다.

“시간이요? 왜요?”
“내가 더 좋은 법을 가르쳐줄게.”

그렇게 염주를 건넌받게 되었습니다. 옴남, 옴치림, 옴마니반메흠이 쓰인 노트도 받았습니. 합장을 하고 불공을 하는 걸 배우면서도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처음 발음해보는 생소한 진언과 손짓임에도 하나도 낯설지가 않고 마음에 속속 박혔기 때문입니다. 나무삿다남 하며 준제진언을 108번 해야 하는 불공과 매일하는 정송에 대해서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때는 새벽 4시가 되면 통행금지라 해제되는 사이렌이 울리던 시절이었습니다. 사이렌 소리를 듣고 일어나면 얼굴만 대충 닦고 절에 갔습니다. 새벽녘 다른 신도들의 집 창문을 서로서로 두들기며 새벽잠을 깨워서 함께 가서 마음을 닦았습니다. 새벽바람이 주우니 두꺼운 옷을 있는 대로 꺼입고 불공을 마치고 나면 식당 장사에 필요한 장을 보러 가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그야말로 바쁜 생활 속에 옹매정진의 시절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저와 함께 정진했던 보살님들이 지금의 총지종을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스승님의 법문을 들었는데 눈과 귀와 마음이 탁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점심나절에 법문 시간이 있으면, 식당의 아주머니께 아무리 식당에 손님이 몰려도 부르지 말아달라고 누누이 당부한 다음 법문 말씀을 경청하는데 몰두했습니다. 스승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정신이 맑아지고 마음이 정화되는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스승님의 가르침이 몇 개 있습니다.

‘남을 구령팅이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나 역시도 가만히 서 있을 수는 없다. 함께 구령팅이를 향해 몸을 움직여야 남을 빠뜨릴 수가 있는 법이고, 자칫하면 나 역시도 구령팅이에 빠지기 십상이다.’

‘초와 향은 자신의 몸을 태우면서 남을 이롭게 한다. 향은 자신을 태우며 남에게 향기로운 향을 주고, 초는 자신을 태우며 빛을 내어 남을 밝게 해준다.’

이 말이 마음에 참 와 닿았습니다. 생전 그런 가르침을 어디에서도 듣도 보도 못하

다가 배우니 소중한 지혜를 얻은 듯했습니다. 그렇게 총지종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후로는 다른 종교는 물론 다른 절에도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살다가 만나는 고난에 있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참회하고, 뉘우치고, 깨쳐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남의 탓으로만 돌리는 어리석은 중생이 바로 우리 인간인 듯합니다. 총지종을 만나서 마음을 닦은 후 저는 남의 탓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자식 원망, 부모 원망, 남편 원망도 일절 하지 않습니다. 원망을 품고 있어 봐야 하등 좋을 게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법도 총지종이 가지고 있는 정말 좋은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보시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뭔가를 한다면 그것은 결코 참된 보시가 될 수 없습니다. 식당 일을 할 때에도 제가 손님 반찬을 더 챙겨 줄라치면, ‘저 사람이 다음에도 오기를 바라서 그러는 건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의 대답은 단연 ‘아니요.’ 입니다. 보시란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돌아오고 저렇게 하면 저런 식으로 되돌아오겠다고 계산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계산을 하는 순간 모든 것은 도루묵이 되고 맙니다. 어쩌면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바라던 바가 오지 않아 서운함이라는 안 좋은 감정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보시를 할 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고마운 마음 하나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사라 합니다. 이것은 제가 경험으로 터득한 깨달음이기도 합니다.

저는 총지종을 만난 후, 총지종을 제 인생의 동반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나니 한결 더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총지종 안에서 귀중한 법문을 만나고, 지혜를 얻어 보다 마음 편하게 삶을 살아가게 되길 서원합니다.



경중완급(輕重緩急)의 자세

‘경중완급(輕重緩急)’이란 말은 공자와 안희 사이의 일화에서 유래된 사자성이 다. 안희가 공자의 심부름으로 시장에 갔는데 포목점 가게 주인과 손님이 시비가 붙어 있었다.

안희가 정중히 인사를 하며, “3 x 8은 분명히 24인데 어째서 22입니까? 당신이 계산을 잘못한 것입니다.”고 말을 했다. 그러자 손님은 “내가 누군데 착건이냐? 도리를 평가하려거든 공자님을 불러와라!”

손님은 목을 내놓겠다고 하고, 안희도 지지 않고 관(冠)을 내놓겠다고 내기를 걸고는 공자를 찾아갔다. 사연을 들은 공자는 안희에게 웃으며 “네가 쪼으니 이 사람에게 관을 벗어 내주거라.”고 말했다.

안희는 순순히 관을 벗어 포목을 사러 온 사람에게 내어주었다. 안희는 공자의 관정에 대해 스승의 처신을 이해할 수가 없었으며, 이제 너무 늙었고 우매해졌으므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생각했다.

안희는 부모님을 찾아뵙겠다고 공자에게 고향에 다녀올 것을 요청하였다. 공자는 가능한 빨리 돌아올 것을 당부하면서 ‘두 마디’의 충고가 새겨진 ‘천년고수막존신(千年古樹莫存身, 살인부명물동수(殺人不明勿動手)’라고 써진 죽간(竹簡)을 건네주었다.

고향으로 향하던 안희는 갑자기 천동소리와 함께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를 만나자, 길옆 오래된 고목나무 밑으로 뛰어 들어갔다. 순간 스승의 충고인 ‘천년고수막존신 즉, 천년 묵은 고목나무에 몸을 숨기지 말라’는 말이 떠올라 뛰쳐나왔다. 바로 그때 번쩍하면서 그 고목나무가 번개에 맞아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고향집에 도착해 조용히 아내가 자고 있는 내실의 문고리를 풀었다니 킁킁한 침실 안에서 두 사람이 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순간 화가 치밀어 올라 검을 뽑아 내리치려는 순간 공자의 충고가 떠올랐다. ‘살인부명물동수(殺人不明勿動手) 즉, 명확치 않고서는 함부로 살인 하지 말라’ 얼른 촛불을 켜보니 한쪽은 아내이고 또 한쪽은

자신의 누이동생이 자고 있었던 것이다. 안희는 날이 밝기 무섭게 공자에게 되돌아가 무릎 꿇고 “스승님이 충고한 두 마디 말씀 덕분에 제가 벼락을 피했고 제 아내와 누이동생을 살렸습니다. 어떻게 알고 계셨습니까?” 여쭙었다.

공자는 “안희야! 첫째는 어제 날씨가 건조하고 무더워서 다분히 천둥 번개가 내릴 수가 있을 것이므로 벼락을 피어들이기 쉬운 고목나무를 피하라고 했던 것이고, 둘째는 네가 분개한 마음 풀지 못하였고, 또한 보검을 차고 떠났기에 너를 자극하는 어떤 조그만 일에도 분명 예민하게 반응할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란다.”

공자가 이어서 말하길 “안희야! 한번 잘 생각해보아라. 내가 손님의 말이 맞다고 하면 너는 그저 머리에 쓰는 관 하나 내준 것뿐이지만, 만약에 네 말이 맞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목숨 하나를 내놓아야 하지 않았겠느냐?” 안희가 비로소 이치를 깨닫게 되어 공자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큰절을 올리고 공자 곁을 떠난 적이 없었다고 한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가끔은 자신이 부리는 고집이나 자신이 옳다고 하는 판단, 옳고 그름의 사소한 언쟁 등으로 논쟁에서 이기고도 마음이 불편한 적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일로 인하여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될 수도 있다.

아무 의미 없는 체면이나 위신, 또는 자존심 때문에 후회막급한 일이나 기억하기조차 싫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차라리 논쟁하는 상대방에게 그 순간만큼 양보하거나 저주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했다고 자신의 지식이 퇴보하거나 인격이 깎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지식과 인격이 돋보이게 되어 물론 승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승자가 되어있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가을이 성큼 다가오는 계절의 전환기에 건강 잘 챙기시고 경중 완급의 자세로 살아가자는 다짐을 해보는 9월의 아침이다.

시인, 전 동해중학교 교장 탁상달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후원에 감사합니다

7월 21일 ~ 8월 20일까지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복지사업에 소중한 기여입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명을, 통산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관성사	우인	7/24	10,000	동해사	김진화	8/5	10,000	세곡 키움센터	김경희	7/31	20,000	정각사	김점남	7/31	20,000	
	김병석	8/4	10,000		송인근	8/18	10,000		이순영	8/10	20,000		탁상달	8/4	10,000	
	공덕성	7/24	20,000	만보사	강명순	7/31	10,000	시범사	해광	8/13	10,000		노점호	8/9	10,000	
	수중원	7/24	10,000		홍도열	8/7	10,000		해원정	8/9	10,000	제석사	이진승	7/31	10,000	
	밀공정	7/24	10,000		이종구	8/11	7,000	실보사	서령	8/9	10,000	초록 어린이집	유지영	8/2	80,000	
	선도원	7/24	10,000	밀인사	김광혁	7/31	10,000		황성녀	7/26	10,000		록경	7/26	20,000	
	법지원	7/24	10,000		김재영	7/31	10,000		정우석	8/11	10,000	총지사	백귀임	8/10	10,000	
	일성혜	7/24	10,000	법천사	덕광	8/10	20,000		유승우	8/13	10,000		최영아	8/10	10,000	
	시흥화	7/24	10,000	법황사	반야심	7/31	10,000	실지사	이도현	8/13	10,000		김정환	8/13	10,000	
	안주화	7/24	10,000		인선	7/24	10,000		이서현	8/13	10,000		신현태	8/13	10,000	
	진일심	7/24	10,000	벽룡사	정계월	7/24	10,000		이루나	8/13	10,000	통리원	유은혁	8/18	10,000	
	시각화	7/24	10,000		박미경	7/25	10,000		정우석	8/17	10,000	포레스타7 어린이집	김평석	8/1	10,000	
	최상관	7/24	10,000		승원	7/24	10,000	아동회관 어린이집	진금선	7/26	80,000		최유정	7/26	80,000	
	연동원	7/24	10,000	벽룡사	묘원화	7/24	10,000		양지 어린이집	정동숙	7/27	80,000	화음사	무명씨	7/28	10,000
	자선화	7/24	10,000		이민선	8/2	80,000	운천사	반야화	8/5	50,000		무명씨	8/1	10,000	
	승호제	7/24	10,000	벗고을 어린이집	하명순	7/25	10,000		이성미	8/7	50,000		무명씨	8/2	30,000	
단음사	신정희	7/24	700,000		박필남	8/14	10,000		하재희	7/25	80,000	힐스 어린이집	박옥자	8/5	10,000	
단향사	지홍	8/13	20,000	석관실버 복지센터	정윤영	7/25	10,000	일원 어린이집	연명구	7/28	10,000		곽방은	8/10	80,000	
	이상채	8/13	10,000		박현정	7/25	20,000		진여	7/25	10,000					
동해사	법선	7/24	10,000		나석원	7/26	5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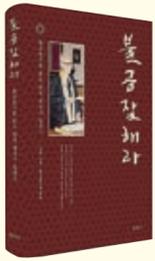
***포항 대련리 후원금**

기로스승	총지화	8/21	20,000
통리원장	우인	8/21	100,000



<제43주기 종조명도절 특집>

남기신 가르침대로 모두가 함께 걷기를



불교총지종 종조 원정 대성사 일대기 불공 잘해라

지음 김천
역음 불교총지종
판형 141×205(국판 변형) 284쪽 전면컬러 양장
출간일 2021년 12월 15일
가격 15,000원

우리는 때때로 기억해야 할 것을 잊고, 부질없는 것을 기억한다. 한 사람의 삶에 있어서 또한 시대의 역사에 있어서도 그렇다. 기억은 자신의 동질성을 지켜주는 힘이고 기억의 축적은 역사를 이룬다. 그런 점에서 위대한 자취를 남긴 사람이 살아간 기록은 집단이 공유해야 할 기억이기도 하고 함께 나누어야 할 가치관의 총체이기도

하다. 원정 대성사 일대기 작업을 하면서 그 점을 더 확실히 마음에 새길 수 있었다.

우리가 지낸 지난 100년 전후의 흐름이 워낙 격변의 연속이라 혼란 속에 사라져버린 자취와 흔적들이 남아 있는 것보다 많은 실정이다. 그러니 망각은 기본이고 그 망각에 힘입어 과거를 세탁하는 일도 부지기수였다. 친일파가 독

립운동가로 둔갑하고 밀정이 고매한 인격으로 포장된 역사를 우리는 흔히 보아왔다.

대성사님의 전기 작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처음 고민했던 것은 그의 남아 있지 않은 해방 이전의 흔적이었다. 이력서의 기록으로만 보면 당연 친일을 했으리라 의심되는 부분도 있었다. 그러나 기록을 찾고 흠어진 역사의 흔적에 하나하나 살을 붙여가다 보니 우리가 잊고 있던 광복을 위한 치열한 투쟁의 삶이 그 속에 있었다.

흔히, 독립유공자 포상을 대성사님의 선친이 받은 터라 나머지 가족들은 독립운동을 지켜만 보았으리라 생각할 수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대성사님 나이 6살 때 두 발로 만주를 향해 걸어간 그 순

간부터 내몽골의 비바람을 맞아가며 시련의 삶을 견뎌내던 때까지, 그 모든 시간을 온몸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것이다. 가족 모두가 조국의 독립이란 대의를 위해 자기 배를 채울 겨를도 없이 동포들과 나누며 총을 들거나 밀명을 전하거나 일본군의 동정을 살피는 일까지 어떤 형태로든 독립전쟁의 일원으로 싸웠다. 명백한 사실이다.

여기까지가 명료해지자 대성사님의 종교적 입장과 목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고난의 시대, 고통 받는 민중이 가야 할 길을 오랫동안 잊혀졌던 밀교라는 수행의 가르침에서 찾아낸 것이다. 이상과 현실이 모순되지 않고 몸과 마음과 말이 한결같이 조화를 이루어 다 함께 부처가 되는 시대를 꿈

꾼 것은 그의 살아온 자세와 마음속 심지를 살펴보면 당연한 일이 될 수밖에 없었다.

구한말부터 한국전쟁 전후까지, 해결할 수 없는 이 땅의 문제들에 대해 종교에서 답을 찾으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그 시절이 한국 신종교의 황금시대가이기도 했고, 총지종처럼 과거를 딛고 새로운 가치를 제시한 가르침도 등장했다. 정치와 무력으로 풍비박산이 된 현실을 살피면서 현자들은 종교적 가치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내려 한 것으로 보인다. 대성사님도 민족의 고난과 가족의 역경 속에서 자연 그 길을 걸어갔다고 보았다. 물론 그분께서 마음에 새겼던 천하 구제의 큰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나의 좁은 소견일 수도 있다.

일대기 작업을 하면서 안타깝고 아쉬웠던 것은 이 작업을 조금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하는 점이다. 다른 마음 밝은 이가 먼저 나서서 진즉 대성사님을 기억하는 이들을 만나고 듣고 전해 온전한 일대기를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슬픔이 있었다. 하나 슬픔은 그대로 묻기로 하고, 실낱만큼이라도 남은 이 기억의 조각들을 더 이상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성사님이 남기신 가르침대로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진리의 길을 모두가 함께 걷기를 바란다. 그 길은 누구에게나 마음의 힘이 되리라 믿는다. 다 함께 진리를 향해 나아가길 바라며. 오마니만메흠.

작가 김천



인과의 윤회 그리고 해탈의 지혜

근래 어느 암자의 노스님이 '윤회는 없다'는 주장을 해서 불교계가 시끄럽다. 세상은 늘 시끄러운 곳이나 고요해야 할 불교계가 '윤회'에 대한 견해 문제로 설왕설래하니 안타깝다.

그렇지만, 자리를 놓고 다투는 것보다는 부처님 법에 대한 탐구는 좋은 일이다. 이 시비를 스스로의 정견(正見)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 가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불자라면 다 아는 바와 같이 윤회설은 부처님이 최초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전생과 내생이 이어진

다는 생사윤회는 부처님 이전에 인도의 브라만교의 가르침이었다.

윤회와 해탈의 가르침, 불교

부처님 당시에도 윤회설은 널리 알려져 있었다. 인도의 브라만교는 네 가지 신분의 카스트라는 사회 계급제도를 만들었다. 브라만은 제사장의 최고 계급이 되고 그 아래 무사 계급인 크샤트리아, 농사와 상업 등 경제활동을 하는 바이사, 그리고 최하층 계급이 수드라이다. 네 계급은 부모에 따라 결정되었고, 평생 그 계급으로 살아야 하

는데, 전생에 지은 과보(果報)로 금생의 몸을 받았다고 가르쳤다. 당시 인도의 지배계급인 브라만교는 이러한 인과 윤회설을 철저한 통치 이데올로기로 만들어 사회를 지배하였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러한 운명론적인 윤회설에 의문을 품고 영원한 대자유를 찾아 왕자의 지위도 버리고 출가하였다. 그래서 부처님은 수도를 통해서 중도의 깨달음 성취하고 생사윤회의 괴로움에서 해탈 열반하는 길을 찾았으니 이것이 바로 불교(佛敎)다. 부처님은 브라만

교의 윤회설을 수용하였지만, 그들처럼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는宿命론(宿命論)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윤회에서 해탈하는 길을 가르쳤다. 더 나아가 카스트라는 세속사회의 대안으로 승가라는 불교 공동체를 창설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윤회가 불교 근본이라는 주

부처님과 그 제자들이 설한 방대한 팔만대장경에는 윤회와 동시에 해탈의 길이 설해져 있다. 그럼에도 근래 남방에서 공부하고 온 일부 수행자들은 '윤회가 불교의 근본'이라 주장한다. 윤회가 불교의 근본이라면 브라만교(힌두교)와 불교의 차이는 무엇이란 말인가?

부처님께서서는 수많은 경전에서 생사윤회의 괴로움을 말하면서 해탈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다. 그러니 깨달음, 해탈이 불교의

근본이지 윤회를 근본이라 함은 불교의 정견이 서지 못한 것이다. 이런 견해는 '나'가 있고, 내가 세세생생 윤회하면서 수행하는 잘못된 생멸(生滅) 연기관에 근거한 것이다. '생멸 연기관'이란 부처님이 깨치고 설하신 연기법을 존재원리로 보지 못하고 생멸원리로 보는 견해를 말한다. 나와 세상 만물을 생멸 현상으로 보게 되면 '나와 법이 있다'는 상견(常見)에 떨어진다고 부처님은 경계하셨다.

인과 부정으로 여우가 된 수행자

한편 이번 노스님처럼 윤회를 부정하는 불자들도 적지 않다. 선종의 유명한 『백장록』에는 인과(因果)를 부정하여 여우 몸을 받은 수행자 이야기가 나온다.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은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잘못 말했다가 그 과보로

축생인 여우의 몸을 받았다. 그 수행자는 훗날 도인 백장 스님에게 가르침을 청하자 "수행을 많이 한 이는 인과에 어둡지 않다(不昧因果)."고 말해 주었다.

이와 같이 인과와 윤회를 없다고 부정하는 이를 불교에서는 단견(斷見)이라 하고, 나와 윤회가 있다고만 보면 상견(常見)이라 한다. 단견과 상견은 대립하는 양면에 치우친 삿된 견해이다. 이것은 중도 정견이 아닌 것이다.

불교는 중도가 근본이다. 나와 나의 것이 있다는 견해에 집착하는 사람은 생사윤회를 피할 수 없다. 나와 나의 것이 실체가 없는 연기, 무아라는 정견을 세운 불자라면 지혜가 나와 생사윤회를 해탈하여 영원한 대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박희승 불교인재원 교수 (사)한국명상지도자협회 사무총장

화음사 교도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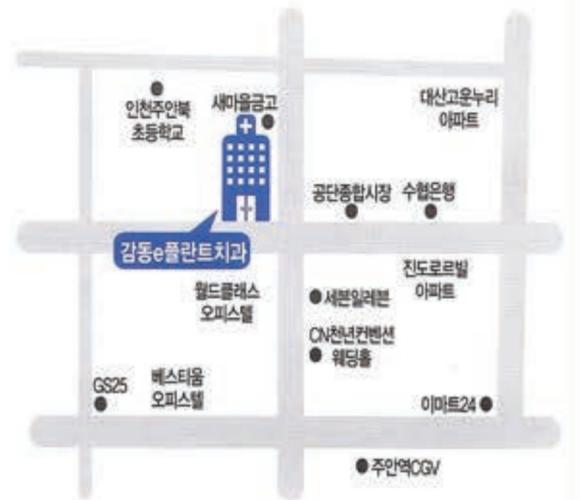
정확한 진단과 섬세한 치료로 최선의 결과를 약속 드립니다!



감동e플란트치과

GAMDONG e PLANT DENTAL CLINIC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14-52 4,5층



임플란트, 보철상담 서두르세요!

예약문의 032)228-2275



석관실버복지센터, 하반기 교육 개강

어르신 사회 참여, 여가 활동 지원

사회복지법인 불교총지총사회복지재단(이사장:우인 정사)이 운영하는 성북구립 석관실버복지센터(센터장: 나석원)가 지난달 7일 사회교육프로그램을 개강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하반기 운영 과정은 정규 학습, 취미, 건강프로그램과 치매 예방을 위한 두뇌건강클래스, 어르신들의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 증대를 위한 스마트클래스 등 특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되었던 노래교실, 하모니카(초·중급), 자유통아리 운영을 재개하면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노래교실은 회원 누구나 참여 가능한 자유통아리 프로그램으로 첫날 100여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수업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오랜 시간 노래교실이 다시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노래를 통해 에너지를 얻고 활력이 생겨 유일하게 웃을 수 있는 시간”이라며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나석원센터장은 “어르신들이 보여주시는 배움의 열정을 응원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02)957-9923

어린이 생태친화 프로그램 개발·학습

일원어린이집 하재희 원장, 연구모임 운영



“자연친화적 보육활동에서 나아가 아이들의 욕구를 존중하고 아이 다음을 구현하기 위해 연구모임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일원어린이집 하재희 원장이 총괄운영 중인 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 산하 ‘보육교직원 생태친화 연구모임’의 교사들이 지난달 29일 일원 어린이집 지하 대강당에 모였다. 여기에는 사회복지재단 산하 초록어린이집 원장을 비롯한 교사들도 함께 했다.

지난 4월부터 시작한 이 모임은

10월까지 총 8회에 걸쳐 ▲모든 생명 존중하며, 배려하기(행복한 텃밭 가꾸기) ▲최대한 밖에서 지내기(마음껏 놀고, 관찰하며, 여유롭게 즐기기) ▲실내 환경을 친화경, 자연물 등으로 바꾸기 등을 목표로 매달 진행되어 오고 있다. 계절에 따른 자연의 변화를 경험하고, 변화하는 생태환경 속에서 아이들과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을 연구하여, 보육현장에 확장·적용함으로써 양질의 보육 과정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가로세로 총/지/문/답

13x13 crossword puzzle grid with numbers 1-13 in both horizontal and vertical directions.

가로 열쇠

- 1 총지중에서 경로 효친사상 고취를 위해 격년마다 9월에 열리는 큰 행사
2 생김새나 행동, 마음이 예쁘고 사랑스러운 사람
3 '해로울 것도 없고 이로우도 없다'는 뜻의 사자성어
4 후고구려를 건국한 한국사 유일의 승려 출신 군주로 스스로를 '미륵불'이라 칭함
5 1957년 제1회를 시작으로 한국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미인 대회
6 다 써서 못 쓸 정도로 짧은 연필
7 경북 안동시 하회마을에서 전해져 내려온 한국의 민속탈
8 피부 건강 및 관절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로 족발, 닭발 등에 함유
9 태풍의 중심부에 나타나는 맑게 갠 무풍지대, '허리케인의 눈'이라고도 불림
10 뒤주에 갇혀 굶어 죽은 영조의 둘째 아들이자 정조의 아버지
11 한가위로 불리는 연중 가장 풍성한 명절
12 가을철에 부는 상쾌하고 선선한 바람
13 제주도에서 흔히 보이는 검은 색을 띠는 화산암

세로 열쇠

- 1 '왕조의 큰 북을 빈다'는 의미로 이성계가 조선 시대에 가장 먼저 지은 궁궐
2 불교 의식에서 쓰이는 용품, 불구라고도 함
3 산과 바다에서 나는 진귀한 물건으로 차린 맛 좋은 음식
4 이익을 얻음
5 문학, 미술, 예술이 잘 발달된 로마가 수도인 유럽 남부 공화국
6 현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미리 보여 주는 꿈
7 하늘이 정해 준 연분
8 덴마크의 수도로 북유럽에서 가장 큰 도시
9 서리를 맞아 가며 자란다고 하여 명칭이 붙은 겉은 검고 속은 파란 콩
10 남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좋은 목적을 가진 착한 마음
11 이탈리아 로마 중심지에 위치한 거대 유적지로 원형 모양의 투기장
12 불교 문화재의 걸작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석굴사원으로 국보 제24호
13 눈 뭉치로 만든 사람 형상

극락양생을 발원합니다

경진생 김대규 영식

(총지사 김은미 교도 부 / 정각사 안미옥 교도 시부)

축하합니다

실보사 박광석(고 김임이 교도 손자, 윤호순 교도 자녀)

카이트 기계공학 박사 취득 /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 입사

총지사 황보정미(특경 정사, 범수연 전수 자녀)

제14회 문학동네청소년문학상 『은서의 화분』 대상



호박이 주렁주렁

아이들이 방글방글

서울 관성사(주교: 우인 정사)가 옥외 텃밭을 가꾸며 개방한 가운데 인근 경희궁 유치원 어린이들이 야외 체험학습을 나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보현 전수미 총지스케치



불교총지종 법회 안내 및 사원 일람

불교총지종 불공 일정

Table with 2 columns: 불공명 (Buddhist Service Name) and 일정 (Schedule). Rows include 공식불공, 자성일불공, 월초불공, 새해불공, 종조탄신일, 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부처님오신날,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해탈절(우란분절), 종조멸도절, and 창교절.

불교총지종 연중 불공

Table with 2 columns: 불공명 (Service Name) and 설명 (Description). Rows include 새해불공, 상반기, 하반기 진호국가불공, 월초불공, and 자성일 불공.

불교총지종 사원 일람

Table with 4 columns: 사원명 (Name), 우편번호 (Postcode), 주소 (Address), 전화번호 (Phone Number). Rows are categorized by region: 대구경북교구, 서울경인교구, 충청전라교구, 부산경남교구.

불교총지종 경로법회 안내



2015년



2015년



2017년



2017년



2019년

2023년 제14회
경로법회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 일시** 총기 52년 9월 19~20일(1박2일)
- 장소** 경북 청송 대명리조트
- 대상** 65세 이상 총지교도 누구나
- 문의** 각 사원 주교 또는 본산 통리원(02-552-1080~3)